

광주일보 11기 리더스아카데미 - 미술사학자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풍경화 읽기의 즐거움' 강연

#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미래의 풍경화’ 그려 보세요”

### 인상주의 회화 클로드 모네 등 풍경화로 떠난 중세 유럽 여행 정선 '인왕제색도' 감상법 소개



“풍경화가 17세기 유럽에서 번창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급변하는 시대에 전원에 대한 그리움이 녹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2030년 풍경화를 어떻게 그리고 싶나요?”

지난 2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11기 리더스아카데미' 강단에 선 미술사학자 양정무(사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풍경화 읽기의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주제에 걸맞게 그는 중세 유럽을 관통하는 풍경화들을 120장 넘게 소개했다.

양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면서 해외 여행길이 점차 풀려 다행”이라며 “이번 강연에서는 16세기 베네치아, 17세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9세기 런던-파리를 담은 풍경화를 보며 ‘랜선(비대면) 여행’을 떠나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16세기 베네치아 회화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조르조네와 인상주의 회화의 이징표로 남긴 클로드 모네, 진경산수화의 진수를 펼친 겸재 정선 등의 작품이 소개됐다.

양 교수는 풍경화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



지난 2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11기 리더스아카데미'에서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풍경화 읽기의 즐거움'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은 이유에 눈을 돌렸다. 그는 중세 유럽에서 풍경화가 많이 배출된 건 도시의 과밀화가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풍경화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도시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도시가 과밀할수록 전원을 꿈꾸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유럽 풍경화에서는 굴뚝과 기관차, 청사 등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풍경화는 단순히 보이는 것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대의 속도를 반영한 거죠.”

그는 한 장의 풍경화를 두고 여러 논의의 장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을 매력으로 꼽았다.

지난해 연말 '이건희 컬렉션'으로 광주를 찾은 정선 '인왕제색도'는 '애기할 거리가 참 많은 작품'으로 예를 들었다.

“인왕제색도는 한 폭의 산수화에 담긴 필치를 두고 그려진 날짜와 날씨, 지형을 유추해보는 재미가 있죠. 산 중턱에 자리잡은 고즈넉한 집은 누구의 것일까 추측해보는 것도 인왕제색도를 진득하게 감상해보는 방법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중국 지형이 크게 반영된 조선 전기 산수화 몽유도원도와 300여 년 지나 인왕산의 비 내린 풍경을 그린 후기 산수화 인왕제색도를 비교하는 것도 좋은 감상법일 겁니다.”

양 교수는 올해 14번째 열리는 현대미술축제 '광주비엔날레'를 언급하며 대형 전시가 잇따라 열리며 높아진 국격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저는 오는 6월 한영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영국 내셔널갤러리 명화

전'을 한껏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장들의 명화를 만나며 르네상스 시대 회화부터 인상주의까지 시대상을 비교해보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 교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내건 '네온 도시'를 예로 들며 스스로 2030년 풍경화를 어떻게 채울지 상상해볼 것을 제안했다.

“머지 않은 2030년 미래는 마천루가 즐비한 도시 풍경과 다른 모습의 풍경화가 그려질지도 모릅니다. 인문학적 상상력이 있는 한 새로운 도시는 얼마든지 꿈꿀 수 있으니까요.”

한편 오는 9일 오후 7시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리는 리더스 아카데미에는 국내 최고 러시아 전문가로 알려진 류한수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가 강연한다. /백희준 기자 bhj@



## 전남대병원, 베트남서 사랑나눔 의료봉사 실시

### 국제로터리 3710지구 공동 주관, 한복 등 전달 한국문화 알려

전남대병원(병원장 안영근) 사랑나눔의료봉사단이 지난 달 26일부터 3일간 베트남 응에안성 지역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

전남대병원과 국제로터리 3710지구(총재 손재운) 초아의 봉사단이 함께 주관한 이번 의료봉사는 베트남 응에안성 주민 1200명에게 1900건의 진료를 실시했다.

봉사단은 안영근 병원장, 김유일 사랑나눔의료

봉사단장과 정형외과·이비인후과·순환기내과·호흡기내과·피부과·구강악안면외과 등 6개의 진료과에서 의사 9명과 간호사·약사·치위생사·행정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또 국제로터리 3710지구는 의료활동 지원은 물론 현지 학교를 방문해 자전거 300대와 한복, 축구공과 유니폼 등을 전달하는 등 한국문화를 알리기도 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효녀 가수’ 김다현, 광주 남구 홍보대사 됐다

‘효녀 트로트 가수’ 김다현(15·사진 왼쪽)양이 ‘효도 휴’ 남구의 홍보대사가 됐다.

광주시 남구는 3일 “트로트계 샛별 김다현양을 남구 1호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구에서 홍보대사를 선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김병내 남구청장과 김다현 양은 오후 남구청 1층 열린원실에서 남구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김 양은 오는 2025년 5월 2일까지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청학동 훈장으로 널리 알려진 김봉곤씨의 딸인 김 양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결혼하지 않고 부모님과 330살까지 함께 살 것이라 말해 효녀로 알려지게 됐다.

김다현은 4살 때 판소리를 배운 뒤 12살에는 MBN의 ‘보이스트롯’에서 준우승을 했다. 이후 TV조선 ‘미스트롯’ 3등을 거머쥐며 실력을 입증해 보였다. 최근에는 ‘KBS 불후의 명곡’의 ‘여리다고 알보지 마’ 특집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트로트계의 샛별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김양은 올해 전남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완도군에 생수 1만병을 기부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광주를 대표하는 ‘무등산’을 발표해 광주를 널리 알리기도 했다. 이후 광주지역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대사 역할을 고민해 온 김 양은 고심 끝에 역사와 문화 자원이 풍부하면서 효



행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남구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현양은 이날 “남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적극 앞장서고 남구의 관광자원 및 지역축제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김다현 양의 어머니가 광주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 답례품으로 ‘네이밍 도네이션’을 선택하면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객석에도 김다현 양의 이름이 새겨지게 됐다. /김인디 기자 kdi@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4일(음 3월 15일 壬戌)

☎ 010-9790-8237

### 알림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子

36년생 일관되어야만 유익한 성취에 이른다. 48년생 공허한 것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자. 60년생 추구해 왔던 바와 정반대의 환경에 놓인다. 72년생 바르지 않다면 반드시 바로잡아 두어야 한다. 84년생 마음에 담아 두지 말고 내버려 두는 편세이다. 96년생 수용한다면 나름대로 충분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7, 67



丑

37년생 열과 성으로 공을 들인다면 꼭 이루어질 것이다. 49년생 어설피게 대하면 여러 가지 단초가 드러날 수다. 61년생 갈등 없이 계속되면서 피로감을 더 할 수 있다. 73년생 한계점에 이르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85년생 사소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97년생 구비 요건부터 갖춰 놓고 불일이다. 행운의 숫자 : 22, 61



寅

38년생 흥과 복이 반반이니 의연히 대처하라. 50년생 잡으로 기쁜 일이 생기게 되는 날이나. 62년생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74년생 지난날의 공적으로 인해서 열렬히 환영받는다. 86년생 지구력의 정도에 따른 편차가 대단히 크다. 98년생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8, 50



卯

39년생 자발적인 자세가 상승 효과를 보일 것이다. 51년생 흥정을 하거나 교섭을 벌이는 형국이다. 63년생 일정 기간 동안은 무사태평하게 될 것이다. 75년생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야 뒤따라 없다. 87년생 기본 계획에 변경이 생기면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느니라. 99년생 그동안 공들여 왔던 것에 씩이 트는 국면이다. 행운의 숫자 : 12, 63



辰

40년생 중요한 시점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난 후에 체계를 잡아야 한다. 52년생 즐겁고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길인을 만날 것이다. 64년생 좋은 일이 연달아서 줄을 잇게 되는 시세이다. 76년생 이면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88년생 소신껏 판단하면 후회하지 않으리라. 00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5, 79



巳

41년생 학습고대하여 왔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53년생 일반적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다. 65년생 상대적인 원리만 이해한다면 간단한 문제이다. 77년생 주체성과 독창성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89년생 자세히 들여다보면 익히 알고도 남음이 있겠다. 01년생 차질 없이 예정된 대로 진행 된다. 행운의 숫자 : 04, 96



午

42년생 의무적인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만 한다. 54년생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다. 66년생 여유를 갖고 한 발짝 물러서서 돌켜 봐야겠다. 78년생 승산의 여지는 충분하니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지는 말라. 90년생 확실히 대처한다면 막을 수 있다. 02년생 일이 지난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행운의 숫자 : 59, 93



未

43년생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좌중우돌할 게 뻔하다. 55년생 말없이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인다. 67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줄기차게 계속되어야 한다. 79년생 유익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느니라. 91년생 뜻을 확실히 펼쳐도 좋을 때가 되었다. 03년생 불기화하다면 적극적으로 즐기는 편이 훨씬 낫다. 행운의 숫자 : 17,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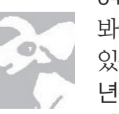
申

44년생 뒷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56년생 기존의 형식이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68년생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백번 낫다. 80년생 성과를 앞서서 목표를 감추지 못 하라. 92년생 조금만 더 버티면 반드시 결코 해질 것이다. 04년생 탐스러운 결실이 열리기 시작하는 본원이다. 행운의 숫자 : 41,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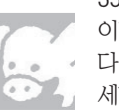
酉

45년생 균형을 잃지 않았는지 뒤돌아볼 일이다. 57년생 힘들더라도 차츰 전망이 밝아질 것이니 앞날의 가능성을 보고 임하라. 69년생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리라. 81년생 호조건으로 전환될 수도 있느니라. 93년생 부수적인 요소들까지 신경 쓰는 것이 옳다. 05년생 진출함이 생산적인 국면에 이르게 한다. 행운의 숫자 : 43, 83



戌

34년생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한 시도 눈을 떼지 말고 지켜 봐야겠다. 46년생 진력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된다. 58년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실행한 후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이다. 70년생 목표를 향해서 발돋움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 82년생 부수적인 것까지 살펴보는 것이 낫다. 94년생 생산성을 높여라. 행운의 숫자 : 42, 62



亥

35년생 잡다한 손익에 얽매이지 말고 진퇴를 분명히 해야 할 때 이니라. 47년생 준비해 왔던 것을 실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59년생 절치는 제대로 밟아 들어 편리할 것이다. 71년생 미세한 조정이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될 상태이다. 83년생 잘 헤아려야 할 일이 있겠다. 95년생 자신의 주권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80, 86

###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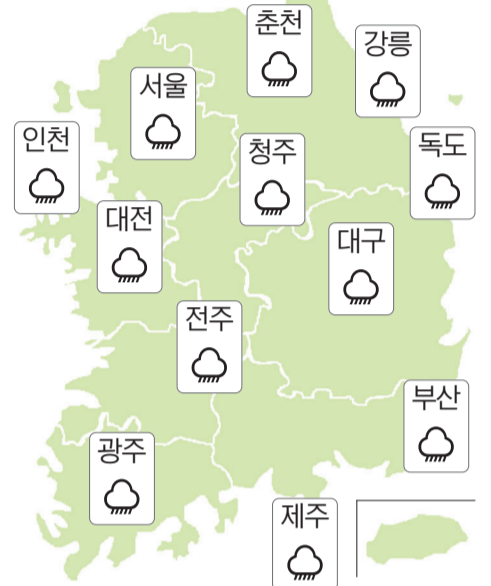
해돋이	05:39	달뜨기	17:54
해질	19:20	달지기	04:43

### 비 내리는 어린이날

연휴기간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겠다.

광주	비	15/20	보성	비	13/16
목포	비	15/18	순천	비	14/19
여수	비	15/18	영광	비	15/20
나주	비	15/18	진도	비	14/19
완도	비	15/18	전주	비	16/23
구례	비	14/18	군산	비	15/22
강진	비	15/18	남원	비	14/20
해남	비	14/18	흑산도	비	13/17
장성	비	15/19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1.0~2.0	1.5~3.0
	면바다(북)	2.0~4.0	2.0~4.0
남해서부	면바다(남)	2.0~4.0	2.0~4.0
	앞바다	1.0~2.0	1.5~3.0
남해서부	면바다(서)	2.0~3.0	2.0~4.0
	면바다(동)	2.0~3.0	2.0~4.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6:35	01:12
		18:45	13:21
여수		02:08	08:15
		14:13	20:43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위험	낮음	보통

### 주간 날씨

5(금)	6(토)	7(일)
18/22	16/22	14/22
8(월)	9(화)	10(수)
12/23	12/24	12/24